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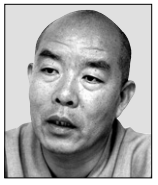
일 주 문



호국금강사서 수계법회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4월 14일 5군단 호국금강사에서 김현집 군 단장 내외 및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국회 정각회서 법문 前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은 5월 1일 낮 12시 국회 정각회 법당에서 봉축을 맞아 법문한다.



인권위 비상임위원 연임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연임됐다. 임기는 3년으로 2016년까지다.



남북 평화 기원 대보탑 점등식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4월 13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남북평화 화합을 기원하는 오십삼존불 대보탑 점 등식 행사를 개최했다.



대관음사 동지승 삭발식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4월 17일 대구 큰절 대관음사에서 동지승 삭발식과 수계식을 봉행했다.



대구 다복사 회주 추대 前조계사 주지 현근 스님이 대구 다복사 회주로 추대됐다. 현근 스님은 정릉 도국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맡고 있다.



자연건강 힐링캠프 선재 스님은 4월 27일 오전 11시 양산 통도사에서 자연건강 힐링캠프를 진행한다. (055)382-7182

총정사 예비역불자연합회 출범



총정사 예비역불자연합회가 출범했다. 이종구 총정사 예비역불자연합회 초대 회장(사진)은 4월 14일 취임법회에서 국군 불교 중흥을 발원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총정사 주지 도윤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호계원장 일면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군중교구장 자광 스님, 적지사 중앙암 도진 스님, 최기덕 성불회 회장, 조남진 국군예불회 회장 등 2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화측〉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전길표 상임위원 장남 우현 군은 강승휘 양과 4월 28일 낮 12시 SD웨딩 9층 벨리나홀에서 화측을 밝힌다. (02)463-5000

“혜암 스님 가르침 널리 펼 것”

혜암선사 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범 스님



“평생 장좌불와 하신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체대비 사상에 서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행을 펼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야산 정진불로 불렀던 혜암 스님의 선사상을 선양하는 사업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혜암선사 문화진흥회(이사장 성범)는 5월 1일 혜암 스님 탄신 94주기를 맞아 해인사 원당암에서 문화진흥회 현판식을 개최하고 탄신 100주년 사업 준비 등 선양사업을 진행한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범 스님(진주 호국사 주지)은 혜암 스님에 대해 “평생 장좌불와를 통해 모든 선 수행자들의 모범이 될 만한 행화를 보이신 분”이라며

성범 스님은 “혜암 스님은 1994년과 98년 조계종 분규 때 단호한 소신과 추상 같은 의지로 종단개혁에 앞장섰던 분으로 평소 실천수행을 강조하셨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동체대비 사상으로 실천하는 5

하루 한끼만 먹는 일종일식(日中一食)과 눕지 않고 수행하는 50년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철저한 수행상을 실천해온 대표적 선승으로 성철 스님 이후 불교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94년 조계종 분규 당시에는 종헌·종법 수호 원칙론을 견지하며 종단개혁을 이끌기도 했다. 혜암 스님은 세수 82세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입적했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 이후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승가복지 및 사회복지사업 △효사상 실천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출판문화사업 등을 더해 5대 중점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100주년을 앞두고 교계나 학계에 연구진을 선정해 혜암 스님 선사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5월 1일에는 해인사 원당암에서 혜암 스님 입적 이후 스님의 수행상을 담은 사전을 모은 <혜암 대종사 화보집> 봉정식도 개최된다.

성범 스님은 “스님의 정신을 현대 불교계가 본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제공=한마음선원 LA지원〉

한마음선원 LA지원 새법당 준공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 LA에 새법당이 준공됐다. 한마음선원 LA지원(지원장 혜중)은 4월 14일 새법당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요 내빈으로 LA 고려사주지이자 남가주 사원연합회 회장인 묘경 스님, 금강 선원주지 경진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측에서는 뉴욕 지원장 원공 스님, 시카고 지원장 혜지 스님, 캐나다 토론토 지원장 청각 스님, 금강지원장 청강 스님, 대구지원장 해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제주지원장 혜도 스님,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원공 스님은 법문에서 “한마음

선원 LA지원 도량은 중생들에게 고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동시에 시대의 불교가 나아가 길과 지구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는 도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행 스님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주지역 초청으로 여러차례 법회를 열었다. 그때마다 고국을 떠나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교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1990년 12월 미국 LA에 지원을 개원했다.

LA지원은 2012년 2월 7일 기공식을 갖고 법당 20~30평 남짓한 작은 건물에서 요사채 옆으로 증축, 50평 규모의 법당을 증축했다. 이나은 기자

우봉 스님 4월 17일 파리서 입적

1972년 승산 스님 1대 제자로... 23일 다비식 봉행

유럽과 아시아에서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치던 우봉 스님이 4월 17일 오후 7시(프랑스 현지 시각) 파리 선 센터에서 입적했다.

우봉 스님은 법화도량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유럽의 각 선 센터를 순회하며 법화와 안거를 이끌었으며, 입적 당일에는 파리에서 일일 안거 중이었다.

법화도량 측은 “우봉 스님께서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활기 넘치는 모습이셨으나, 몸이 피곤해 밤에 가 쉬시겠다고 하신 뒤 신도들이 방에 들어가보니 스님께서 이미 입적하신 상태였다”고 전했다.우봉 스님의 장례식과 다비식은 파리 현지에서 4월 23일에 치러진다.

폴란드에서 출생한 우봉 스님은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베트남전 반대운동을 벌이다 종교와 철학 서적에 파



문혀 시간을 보낸다. 이후 1972년 승산 스님을 만나 제자가 된 우봉 스님은 승산 스님을 도와 폴란드에 관음선센터 설립하고 1984년에는 참선지도자로 인가 받은 후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전법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에는 승산 스님의 법전수를 받은 후 파리에 선센터 설립하고 2009년 승려로 출가한 뒤 베를린 선센터와 한국 향천사, 법화도량 등에 상주하며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법활동을 펼쳐왔다. 이나은 기자

조동종 종조 양개 대화상 헌다례제

4월 17일 상계동 도선사에서... 200명 참석



4월 17일 총무원 상계동 도선사에서 열린 '조동종 종조 동산존자 양개 대선사 헌다례제'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4월 17일 총무원 상계동 도선사에서 '조동종 종조 동산존자 양개 대선사 헌다례제'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지명 스님, 부종정 법공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종도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묵조선의 법맥을 잇고 종조의 가풍을 세겨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정진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원장 광혜, 규정부장 소담, 기획실장 혜산 스님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신일 재무부장 명원 스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진행됐다.

종정 지명 스님은 법어를 통해 “깊은 불심으로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 하도록 항상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종은 2014년 중국 보리선사 조동종 한국법당 점안법회와 종조 다례제를 함께 봉행할 예정이며 올 6월중 종단수륙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형은 경남남부지사장

김해 중부경찰서 경찰법우회 창립

경남 김해 경찰서가 신설된 지 51년 만에 경찰법우회가 창립됐다. 김해 중부서 경승실장 법장 스님(삼보종 총무원장)은 4월 11일 중부서 대강당에서 경찰법우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경승회원 월주(동림사), 도광(죽림사), 도명(여여정사), 법륜 스님(화엄사)과 김광공 김해시장, 하인수 경찰서장 등 법우회 회원 60여명이 동참했다.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뜻을 새겨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형은 경남남부지사장

진흥원 교도소에 만화불서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4월 15일 전국 교도소 재소자들과 병원법당 환우들에게 만화 불서 1000여 권을 전달했다. ‘만화를 통한 불교 포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교도소 60여곳과 병원법당 30여 곳에 전달된다.

불교진흥원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병원에서 심신 치유와 함께 사색과 힐링(healing)이 필요한 병원 환자들과 교도 전달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3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학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원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해원정사 추모원 (납골당) 안내

천하의 명당

여로부터 집터를 잘 골라야 집안이 번성하고, 조상의 묘터를 잘 골라야 후손까지 번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원정사 추모원은 일주문서 삼봉산을 마주한 자궁혈에 위치하여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명당 중의 명당으로, 자손들은 수명장수하고, 하는 일에는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리적 편의

해원정사 추모원은 광주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유족들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 좋고 쾌적하며 산세의 푸근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후대의 번영을 기원함으로써, 가신 분과 보내시는 분 모두가 함께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도량의 복덕

매일 도량에 올려퍼지는 목탁과 염불소리는 돌아가신 영가의 천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에게도 큰 복덕이 되어 돌아오며, 후손들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해원정사 추모원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385번지 전화 (062)234-4576, 222-7979 / 인터넷 주소 : www.해원정사.kr